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결	서무	간사	의장
재			

제67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일시	2016. 11. 28(목) 12:00
		장소	본부관 311호
참석인원	의장 조남준, 부의장 안승권, 김상섭, 문창로, 김인걸, 변추석, 김춘형, 허영화, 윤정국, 이성훈, 김정훈		
업무지원	간사 이승구, 서무 이해경		
불참의원			
발표자	기획처장 정승렬, 예산평가팀장 조준, 예산평가팀 양윤선		
안건	1.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2. 기타 토의 사항		

◎ 회의내용

- 이승구 간사 : 재적의원 11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 조남준 의장 : 개회를 선언하고 오늘 회의 안건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문임 설명함

[안건 1.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 정승렬 기획처장 :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함 (붙임자료 참조)

- 김인걸 의원 : 연구년 교수 급여 환급 항목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질문함

- 양윤선 : 이전 회계연도에 지급된 급여가 환수된 것으로서 연구년으로 재직하다 일정 기간 이내에 퇴직을 할 경우 급여를 환수해야한다는 규정에 의거, 환수된 급여라고 설명함

- 이승구 감사 : 미술학부의 권여현 교수가 퇴직을 할 때 연구년을 다녀온 지 3년이 되지 않아 규정에 따라 연구년 기간의 급여를 환수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함

- 김인걸 의원 :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노임 감소 부분에 대해 질문함

- 양윤선 : 전문·특수대학원의 경우, 수입이 감소하면 수입의 일정 부분을 사용하게 되는 지출의 비율도 감소하게 되어 감소한 부분이라고 설명함

- 정승렬 기획처장 : 편입생의 숫자도 줄어들고 전문·특수대학원의 수입 및 단기수강료가 본예산 예상수입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고 부연 설명함

- 윤정국 의원 : 건설가계정이 작년에도 40억 원이 반영되었다가 우선순위에 밀려서 사용을 못 했는데 올해도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건물 인수에 관한 계획이 잡혀 있어 자금 운용상 우선순위가 다시 밀리게 되었다고 답변함

- 김춘형 의원 : 2015학년도 최종 수입액과 2016학년도 추경 기준 결산 수입액이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은 결국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트렌드가 계속 될 것이라면 이슈가 되고 있는 평생교육원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줄이고 커리큘럼 등을 통폐합하거나 운영팀을 통폐합 하는 등 규모를 축소하여 비용을 줄여 대응해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함

- 정승렬 기획처장 : 현재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은 포화상태라고 말하고 예상 수입과 실제 수입액의 차액은 역대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전공분야를 다른 분야로 확대해 보려고 하다가 조형대학과의 마찰이 빚어진 것이라고 설명함

- 김춘형 의원 : 시설관리비 중에 교내교육환경 개선공사에 1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개선공사가 모두 진행되고 추가로 개선공사를 진행해야한다는 뜻인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본예산을 잡을 때 처음에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평가 등의 결과로 사업비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다시 지출을 해야 하므로 추경예산에서 증액을 한 것이라고 답변함

▪ 윤정국 위원 : 적립금 액수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본예산에서 예상하지 못한 증액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내년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 같은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노원기숙사의 임차보증금을 환수한 금액 21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언젠가는 지출이 될 금액이고 전기이월액으로 인해 적립된 금액은 예비비 형식으로 넘어가는 금액이라고 말하고 기타 다른 수입으로 늘어난 합계액이 11억 정도인데 만약 고려보건대 건물을 구입하게 된다면 그 액수는 중요한 시드머니가 될 수 있으므로 내년에도 계속 이런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함

▪ 윤정국 의원 : 고려보건대 건물은 대출을 받아 구입할 것으로 들었는데 예산상의 영향은 없는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며 건축재정이 필요하긴 하나 고려보건대 건물 구입으로 교지확보율이 늘어나게 되면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함

▪ 윤정국 의원 : 교내구성원 영유아교육비가 지난 7월 이후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추후 지급이 결정될 경우를 대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질문함.

▪ 양윤선 : 영유아교육비는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다고 답변함

▪ 조남준 의장 : 고려보건대 건물을 구입하게 되어 교지확보율이 증가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편입생 정원을 산정할 때 교지확보율을 포함한 4대 교육여건 지표가 상승하면 정원 산정 등급이 올라가 편입생의 숫자를 늘릴 수 있다고 말하고 우리 학교는 3년 전만 해도 최하위의 5등급이었는데 4대 지표의 평가지수가 상승되어 4등급으로 오르면서 150여 명의 편입생 정원이 늘어나 약 15억 원의 수입이 증가되었다고 설명함.

현재 우리 학교는 편입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편입생 정원 산정 등급이 3등급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수입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함

▪ 조남준 의장 : 구조개혁평가 등 각종 평가 지표에 교지확보율이 들어가는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교육부에서는 정량적인 지표는 구조개혁평가에 넣지 않겠다고 했는데 교원확보율은 평가 지표에 들어가고 교지확보율은 지표에 들어가지 않지만 중요한 교육여건 지표이며, 현재 교지확보율이 50%도 안 되는 상황이라 계속 노력해야한다고 설명함

▪ 조남준 의장 : 김포캠퍼스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지난 11월 중순에 김포시청으로 영화 및 바이오 쪽 아이디어를 제시한 계획안을 제출했는데 그쪽에서는 단과대학의 이전을 요구하며 우리가 제시한 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12월 중순 즈음 다시 계획안을 보낼 계획이지만 특정 단과대학이 스스로 가겠다고 하지 않는 한, 힘들 것 같다고 답변함

▪ 윤정국 의원 : 차량유지비 계정과목에 수리비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차량매입비용인 차량운반구 계정과목이 따로 책정된 이유를 질문함

▪ 양윤선 : 40만 km 이상 운행한 차량은 신규 매입 대상이라고 말하고 현재 대상 차량이 두 대인데 교체를 할 것인지 수리를 해서 계속 운행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변함

▪ 윤정국 의원 : 미래기획단이 폐지되었고 대외협력부총장 직제가 개편이 되었는데 업무추진비는 부총장에 대한 비용의 증가만이 반영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함

▪ 양윤선 : 업무추진비는 기타운영비 항목에 들어가 있어 그 계정과목에서 반영된 것이라고 답변함

▪ 변추석 의원 : 회의 자료가 전년대비 금년의 비교 내용이 없어 어떻게 예산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가 힘든 것 같다고 발언함

- 김춘형 의원 : 교비회계를 보면 적립금 관련 예산은 균형 재정인 것 같은데 교비회계의 남은 예산은 어떠한 형태로 적립 전환 되는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수입이 많아진다고 해도 법적으로 남은 예산을 모두 적립할 수 없고 감가상각비만큼은 법적으로 적립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가 대학의 힘이라 할 수 있다고 답변함
- 김춘형 의원 : 고려보건대 건물 매입을 위해 적립금 일부와 부채를 사용하겠다고 하였는데 부채 상환 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수입 예산이 남을 경우 그 돈으로 부채 상환이 가능한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수입 예산이 남을 경우 그 돈으로 부채 상환은 가능하며 20억, 30억 씩 순차적으로 갚아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함
- 이성훈 의원 : 고려보건대 매입 금액은 얼마인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감정회사들의 대략적인 가이드는 있겠지만 교육용 자산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는 상황이라 아직 협상중인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알 수가 없다고 설명함
- 변추석 의원 : 몇 군데 평가원의 자료를 가지고 평균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함
- 조남준 의장 : 금리 인상이나 이자율에 따른 지출액의 증가 등 국내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발언함
- 김상섭 의원 : 산학협력단 전입금이 비율 대비하여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CK-II 자금은 내년에도 이 정도의 액수가 들어오는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전입금의 전입 방식이 바뀌어 예전에는 학교의 교비로 들어와 연구소에 배정되었던 비용을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소에 직접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에 수치적으로 학교에 전입되는 금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CK-II 자금은 2018년도까지 3년간은 현재 수준으로 받게 되며 2019년도에 대대적인 사업

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지금 유입되는 자금을 잘 사용하여 실적을 쌓아야 하고 LINC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함

- 김상섭 의원 : 생활협동조합의 수익금 3억 원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양윤선 : 생협의 수익은 2월과 5월에 들어오며 2년 전까지는 연간 5억 원 정도가 들어오다가 현재는 6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 중 3억 원 정도가 2월에 들어오므로 2016 회계연도 수입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함
- 김춘형 의원 : 발전기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교직원, 동문, 외부에서 기부한 기부금과 특정학과의 기부금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함
- 김춘형 의원 : 본예산에서는 발전기금을 감소로 예상했다가 추경에서는 증가로 표시가 되었는데 발전기금은 증가하고 장학기금은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함
- 양윤선 : 본예산 편성 시에도 발전기금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발전기금 액수는 증가되었고, 본예산에 감소로 표기된 부분은 발전기금(수입)이 아니라 발전기금 중 적립액(지출)에 관한 표기이므로 발전기금의 증감을 표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 김인걸 의원 : 교내장학금 항목 중 대학원 장학금이 본예산보다도 줄어들은 이유에 대해 질문함
- 양윤선 : 본예산에서 장학금을 크게 잡았는데 전문·특수대학원의 수입이 감소되어 장학금이 감액된 것이라고 설명함
- 정승렬 기획처장 :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전년도 회계 결산 전이고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상태의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을 조율한다는 의미의 편성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함
- 안승권 부의장 : 교원 보수 17억 원 감소는 예산을 절감한 것인지 집행을 안 한

것인지 묻고 교수의 월급이 타 대학에 비해 적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인상분을 반영할 생각은 없는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교원충원을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잡아 놓았는데 다른 변수에 의해 교수 선발을 덜 해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생긴 차액이라고 말하고 현재 우리 학교의 교원 급여는 중간 정도 수준이고 강사료는 사립대학에서 중상 정도의 수준에 해당한다고 답변함

▪ 안승권 부의장 : 입시수수료의 수익이 남았는데 이러한 예산을 사용할 수는 없는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입시수수료는 남을 경우 전액 학생들에게 사용하도록 교육부에서 정하고 있다고 설명함

▪ 조남준 의장 : 우리 학교의 보수 수준이 중간 이상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인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각 학교의 보수는 학교마다 체계가 다르고 급여 항목도 연구비를 급여성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 등에 따라 달라서 정확하게 비교는 힘들다고 말하고 강의전담교원의 급여에 대해 일부 너무 낮다는 의견도 있지만 시간강사 신분일 때와 대비하여 좋아진 것이며 우리 학교는 타 대학의 강의 출강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전담교원의 대우가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함

▪ 윤정국 의원 : 직원의 급여는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한데 우리 학교의 직원 급여 수준은 중간 정도에 해당하고 이번에 임금을 1.9% 인상했는데 한양대학교는 5년 간 임금이 동결되는 등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오른 곳은 없다고 설명함.

현재 대학원 논문 심사료는 액수가 적어 심사료 외에 학생들과 지도교수 간의 식사 등을 할 만큼도 되지 못하는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따로 교수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심사료를 올리자니 심사 대상자의 부담이 늘게 된다고 말하고 이에 따로 이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함

▪ 변추석 의원 : 교원이나 직원의 급여는 학교마다 체계가 달라 정확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가르쳐주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과거에는 우리 학교 수준이 최저인 적도

있었으나 현재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발언함

▪ 김춘형 의원 : 교직원의 처우 개선과 학교 활성화를 위한 짜임새 있는 지출, 재정 건전화에 위한 재단의 지원이 많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발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현재 재단의 전입금은 42억 원인데 이는 교직원 사학연금 법정 부담금 정도에 해당하며 서울 시내 사립대학을 보면 이러한 법정부담금 정도도 내지 않는 법인이 많기에 결코 42억 원이라는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말하고 성균관대학교는 법인 전입금이 매년 천억 원대에 이르지만 임금은 인상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함

▪ 안승권 부의장 : 학교발전기획단 등을 만들어 구 창성동 교사를 찾아오는 방법이나 성곡 도서관 뒤의 국유지를 매입하는 계획 등 미래 발전을 위한 기획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하고 근교에 있는 대학들이 연합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전철을 유치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발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학교 뒤의 국유지는 몇 달 전부터 산림청과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학교발전기획단을 만들자는 의견은 참고하겠다고 답변함

▪ 김춘형 의원 : 학교에서 발전기획단 등을 만들면 총동문회에서도 인력을 지원하여 학교와 동문이 상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발언함

▪ 이성훈 의원 : 학생경비가 감소된 것은 평생교육원의 영향인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학교의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학생 수가 감소했다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배정 경비도 함께 감소한다고 말하고 국고와 관련한 학생 경비는 도리어 증가했다고 설명함

▪ 양윤선 : 단과대학의 학생 경비나 장학금은 도리어 늘어났으며 교비로 지출하는 경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부연 설명함

▪ 조남준 의장 : 의원들에게 다른 의견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함

붙 임 : 제67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자료 1 부

2016. 11. 25

대학평의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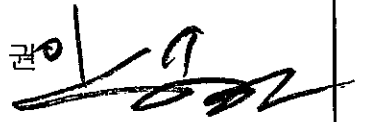
의 장

조 남 준



부의장

안 승 관



의 원

문 창 로



의 원

김 인 걸



의 원

변 추 석



의 원

하 영 화



의 원

윤 정 콧



의 원

김 춘 형



의 원

이 성 환



의 원

김 정 훈



의 원

김 상 섭

